

#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교육공간 자리매김

### 초등~고등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진행

지난달 정식 개관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인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작과 독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3일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식 개관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에서 학교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이곳에서는 개관 이후 인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급급 학교의 학기 중 오전 시간을 활용해 복합문화센터 내에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대표적으로 인근 온빛초등학교의 경우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오는 7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1학년 9개 반 207명과 2학년 8개반 227명이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초등학생들은 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창작활동이 가능한 어린이 창작기지 '모아' △아동 친화적 놀이 환경인 '어린이 놀이기지' △자유롭게 책을 탐색할 수



지난달 정식 개관한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가 인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작과 독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있는 '어린이 책가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독창적인 창작이 가능한 '청소년 창작기지' △내면의 영감과 성장을 돕는 '청소년 책가지' △'청소년 비밀기지'를 둘러볼 수 있다.

이와 관련 7일에는 온빛초등학교 2학년 2개 반이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방문해 어린이 창작기지인 모아에서 창작 활동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스스로 준비해온 재활용품과 모아에 마련된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만들면서 버려진 물건이 창작

을 통해 재탄생되는 것을 배웠다. 또, 놀이기지에서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면서 협동심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책가지에서는 평소 읽고 싶었던 그림책과 만화책을 읽기도 했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학교와 가까운 곳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즐겁고 신난다"면서 "친구들과 함께 또 방문해 창작과 놀이, 책까지 읽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은별 교사(온빛초등학교)는 "어린이들이 함께 창작, 놀이, 독서를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존재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즐겁고 창의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이 모두 참여해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혁신도시 복합문화센터의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견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0-1867)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과 전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 우림 스님)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적극 협력

### 전주시설공단-서원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 우림 스님)과 손을 맞잡았다. 공단은 7일 서원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갖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 일자리를 통하여 공공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공 발전을 위한 교류 협력 등이다. 특히 그동안 부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들을 공단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은 서원시니어클럽과 '시니어 시설관리공단 행정서포터즈'와 '따뜻한 동행', '꽃길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하고, 장애인 이동 수단

인 '어울림 버스'의 승하차를 도우며, 낙후된 거리와 유흥지 등에 꽃길을 조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이들 사업으로 만들어진 노인 일자리는 총 120여 개에 달한다. 양 기관은 올해에도 이들 사업과 추가적으로 발굴한 신규사업 등을 통해 100여 명의 노인들이 일을 하며 긍정적인 자아감을 형성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니어의 숙련된 '경험'과 공단의 '공간' 인프라가 만나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공익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를 비롯한 공공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정신장애인 돌봄·전문 재활서비스 강화 '맞손'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요양시설 참사랑낙원, 협약 체결

전주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한층 강화된 돌봄과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요양시설과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보영)는 7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에게 원활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 참사랑낙원(원장 이계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전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정보교류 및 지역지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을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 다양화 △

일상생활 관리 △직업재활 서비스 △사례관리 △지역자원 연계 등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신장애인의 편견 해소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홍보활동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협약을 통해 교육·훈련 등의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 및 지원체계가 마련돼 정신장애인의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봄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보영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전라북도다문화사랑병원)은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회복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함께 어울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사랑낙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지립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보수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최병집)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노후된 그늘막을 보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 그늘막은 야외에서 햇빛을 차단하여 그늘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파라솔 형태의 시설물로 그늘막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원단으로 바람이 잘 통하여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주민들의 여름나기를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덕진구는 여름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늘막을 총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31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노후된 그늘막은 보수하기로 했다. 신규 설치 장소는 작년 상·하반기 동 수요조사 결과 및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와 신호 대기 시 햇빛이 내리쬐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 5월 초부터 횡단보도 그늘막 운영을 시작했으며, 주민들의 횡단보도 그늘막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여 신규 설치 작업 또한 작년보다 앞당겨 시작했다.

최병집 덕진구청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그늘막을 확대 설치하고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여름철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 완산구, 서곡교 도로 재포장·교통통제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서신동에 위치한 서곡교 도로 재포장 공사 및 그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991년에 준공된 서곡교는 연장 180m, 폭 35m 규모의 교량시설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 기린대로, 온고을로를 연결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만성지구, 하가지구가 개발된 이후 차량 통행이 빈번해졌다.

이에 완산구는 내진 및 보수보강을 위해 작년 12월 30일부터 서곡교 보수 공사를 추진했으며, 동절기 일시정지 이후 올해 2월 재착공했다.

6월 한 달간의 도로 재포장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며, 평소 통행량이 많아 이번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부분 통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완산구는 오는 6월 9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익일 아침 10시까지 도로 재포장 및 차량 통제를 실시하며, 팔복동에서 서신동 방향 구간 차선별 재포장 공사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서신동에서 팔복동 방향 구간의 공사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앞서 완산구는 시민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완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야간공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통방송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시민 대상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